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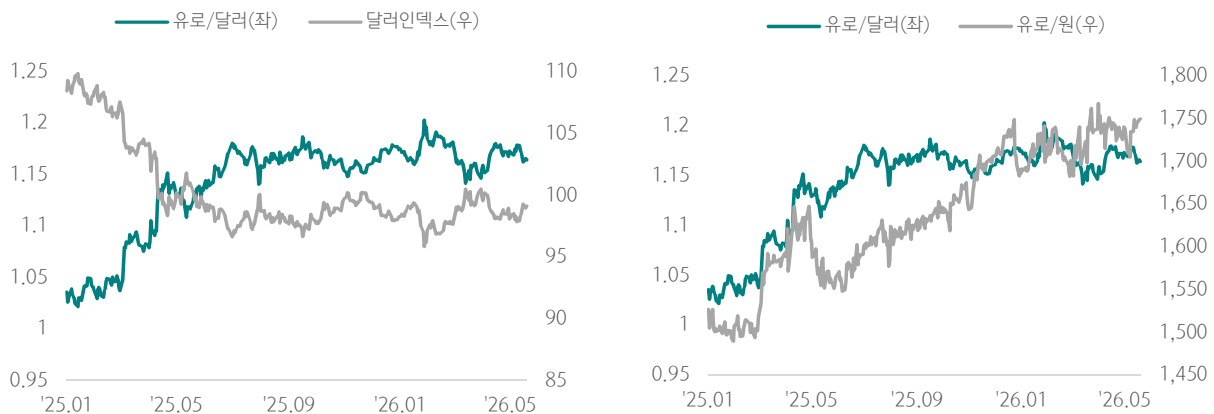
◆ Hana Cross Currency Forecast Letter

◆ '26년 상반기 유로화 환율 수정 전망

I. '26.1, 2분기 유로화 동향

- 예상보다 부진한 유로존 경제 상황과 물가 둔화세 등에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으나, 그린란드 이슈로 유럽 자산의 미국 시장 이탈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달러 대비 크게 강세를 보이며 1.20달러대를 돌파
- 그러나 미-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, 유럽 내 에너지 공급 불안이 고조되자 약세 폭을 확대하며 1.14달러대까지 하락
- 이후 미-이란 간 군사 충돌 우려가 다소 제한된 가운데 고유가 지속 여파로 ECB 통화정책 피벗 가능성까지 부각되자 1.16달러대로 반등

<그림 1> 유로/달러, 유로/원, 달러인덱스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하나은행

자료: Bloomberg, 하나은행

II. 유로화 향후 전망

- 이란 전쟁발 경기 둔화 우려로 단기적인 약세 압력이 불가피하나, ECB 정책금리 인상 전망에 다소 강세를 보일 전망
 - (경제)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'26년 유로존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(IMF: '26.1월 1.3% → '26.4월 1.1%)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약화됨. 반면,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망 불안으로 물가 오름세는 지속('26.3월 2.6% → '26.4월 3.0%)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마저 급등
 - (통화정책) 이에 대응해 ECB의 매파적 기조가 한층 강화되면서 시장에서는 ECB의 6월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으며 연내 추가 인상 기대감도 확산되는 추세
 - (달러화) 다만, 미국 역시 물가 상방 압력으로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이 소멸함에 따라 달러 대비 유로화의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
 - (종합) 결과적으로 단기에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경기 위축 우려가 유로화 약세를 견인하겠으나, ECB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는 하반기부터는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

	'26.1Q	'26.2Q ^(F)	'26.3Q ^(F)	'26.4Q ^(F)
유로/달러(단위: 달러)	1.17	1.15	1.16	1.17
유로/원(단위: 원)	1,715	1,740	1,730	1,720

*분기별 평균 환율, (F)는 예상치